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/

대학	몽골국립대학교	학과	한국어학과	학년	3학년	이름	홍광
----	-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

1 등

소망

하루 하루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 지는
초봄 어느 날이었다. 나는 수업 시간에
늦을까 봐 걱정이 돼서 부랴부랴 학교
로 가고 있었었는데 페이브먼트 옆에서
소꿉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
다. "나는 엄마다" "어, 그럼 난 교통순경이
다. 교통순경!" 저마다 배역을 맡았는데
한 남자애가 친구들이 재촉하는 데도 아
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. 그
리고 한참 있다가 뭔가 생각이 떠오른
것처럼 벌떡 일어나 "우와, 나는 햇별이
될 거야! 햇별" 하고 말했다. 이런 철부지
애가 웬 햇별이 되고 싶은 건지 궁금
해진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. 그
이유를 물어 봤는데 "어, 헤헤, 우리 엄
마니까요. 시장모퉁이 난전에서 나물을
파는데 거기 너무 춥다고 하셔서요. 저
는 이 다음에 커서 햇별이 되면 하루
종일 어머니를 따듯하게 비추어 주고
싶어요. 누나, 이 건 제 소망이요." 하고 햇
다. 아이의 그 속 깊은 말에 나는 콧
등이 시큰해졌다. 나는 그 기특한 아이
를 꼬옥 껴안아 주었다. 마치 햇별을
품은 것처럼 따듯했다. 실천에 옮길 수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2

대학	몽골국립대학교	학과	한국어학과	학년	3학년	이름	홍양.
----	-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

는 없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
 소중한 소망이 었다. 나는 그날 그어때문
 에 지각하고 교수님한테 야단 맞았지만
 후회하지 않았었다. 나도 소망이 있다. 쉽
 게 이룰 수 있는 작은 소망도 있고
 평생 동안 못 이룰지도 모르는 큰 소
 망도 있다. 그 소망들 중에서 내겐 전
 세계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
 소망이다. 미국에서 잊었던 9월 11일
 테러의 비극. 그때 나는 어린 아이였지
 만 모든 분노 절망을 눈으로 본것처럼
 느꼈다. 우리가 가족들이 다 내 곁에 무
 사히 앉아 있었는 데도 그 눈물바다가
 된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 눈물
 이 절로 쏟아졌다. 세상의 몹쓸 시선에
 떠밀린 사람들. 테러의 그림자는 밖에
 놀고 있던 아이들도 비켜가지 않았었다.
 그때부터 나의 이 소중한 소망이 생긴
 것 같다. 전세계의 평화와 사람들에게 리의
 서로에 대한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
 다.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
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. 우리가 꿈
 꾸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
 받아들이는 다음에 일어난다. 고통의 늪에
 빠져 있는 사람은 길을 잃은 아이와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3

대학	몽골국립대학교	학과	한국어학과	학년	3학년	이름	홍강
----	-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

똑 같 다 고 들 한 다. 만 일 고 통 의 눈 에 빠
 진 사 람 을 만 나 면 내 자 신 이 그 런 위
 기 에 처 한 것 처 럼 느 끼 고 그 눈 에 서
 벗 어 나 갈 도 와 줘 야 한 다. 그 러 면 가 슴
 이 뿌 뚫 해 지 고 당 신 도 그 사 람 도 안 도
 의 미 소 를 지 문 것 이 다. 분 노, 절 망, 고
 난 등 수 많 은 에 너 지 들 이 항 상 우 리
 곁 에 있 다. 그 러 나 그 런 것 들 을 다 독 여
 줄 께 은 사 람, 위 호, 용 서 도 우 리 곁 에
 있 다 는 것 은 정 말 천 만 다 행 이 다. 그 두
 에 너 지 중 어 느 것 을 삶 의 모 토 로 삼
 을 것 인 지 는 우 리 에 게 달 려 있 다. 나 는
 진 인 사 대 천 명 이란 말 을 믿 는 다. 그 러 니
 까 나 는 내 소 망 이 혼 자 서 는 이룰 수
 없 는 것 이 지 만 최 선 을 다 해 서 노 령 할
 것 이 다. 한 방 을 한 방 을 모 이 면 거 대
 한 바 다 를 이룰 수 있 는 것 처 럼 나 와
 같 은 소 망 이 있 는 사 람 들 이 한 명 씩
 한 명 씩 모 이 고 소 망 을 합 치 면 언 제
 가 는 온 세 계 에 평 화 를 가 져 올 날 이 있
 을 것 이 다.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1

대학	몽골국립대 외국어문화대학교	학과	한국어학과	학년	3학년	이름	공지쓰마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-

2 등

소 망

저 는 사 랑 의 인 생 은 나 무 와 같 다 고
생 각 합 니 다. 나 무 는 여 름 의 비 바 람 과
겨 울 의 눈 보 라 을 이 겨 내 면 많 은 사 람 들
이 그 그 늘 밑 에 서 쉬 수 있 는 큰
나 무 가 됩 니 다. 사 랑 도 삶 을 살 면 서
많 은 것 을 이 겨 내 고 자 기 세 상 을 만 들
니 다. 제 께 은 우리 몽 골 이 행 복 하 고
잘 사 는 나 라 가 되 는 것 입 니 다. 그 러
기 위 해 서 사 랑 은 자 기 인 생 부 터 시 작
해 야 한 다 고 생 각 합 니 다. 제 가 행 복 하
면 제 주 변 에 있 는 사 랑 들 도 행 복 하 게
살 수 있 지 요. 가 장 훈 응 한 것 은 제
인 생 을 자 기 손 으 로 만 드 는 것 입 니 다.
저 는 중 학 교 에 다닐 때 러 시 아 어 예
관 심 이 많 았 습 니 다. 여 러 대 회 에 나 가
서 상 을 받 은 적 이 한 두 번 이 아 니 었 습
니 다. 그 때 부 터 외 국 어 를 좋 아 하 고
사 랑 하 게 됐 습 니 다. 그 래 서 중 학 교 를
졸 업 하 고 외 국 어 로 전 공 하 기 로 결 정 했 습
니 다. 그 때 저 는 한 국 어 를 선택 했 습
니 다. 왜냐 하면 중 학 교 에 다닐 때 한
국 사 랑 들 은 착 하 고 일 을 열 심 히 한 다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2

대학	몽골국립대 외국어문화대학교	학과	한국어학과	학년	3학년	이름	궁지쓰마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-

는 말을 여러 번 들었 습 니 다 . 그 래 서
 저 도 한 국 어 를 잘 배 우 고 그 나 라 의
 문 화 와 역 사 등 많 은 것 을 알 고 싶 었
 습 니 다 .
 대 학 고 에 입 학 했 고 처 음 에 는 친 척 집
 에 서 살 았 습 니 다 . 집 을 떠 나 나 까 내
 인 생 은 마 치 안 개 속 에 있 는 것 처 럼
 힘 들 었 습 니 다 . 혼 자 서 식 사 할 때 , 빨
 래 할 때 , 아 픔 을 때 는 집 생 각 이 낫 습 니
 다 . 그 령 지 만 저는 마 음 을 독 하 게 먹
 고 공 부 를 열 심 히 했 습 니 다 . 처 음 에
 우 리 반 친구 들 중 에 전 에 한 국 어 를
 8 년 동 안 배 운 학 생 도 있 어 서 한 국 어 를
 전 혀 모 르 는 저는 아 주 힘 들 었 습 니 다 .
 그 러 나 저는 지 지 않 고 노 령 해 서 2 학
 년 때 장 학 금 을 받 았 습 니 다 . 우 리 부
 모 님 은 연 금 수 령 자 이 어 서 제 가 겪 고
 있 는 문 제 는 학 비 였 습 니 다 . 장 학 금 을
 받 을 때 우 리 부 모 님 이 아 주 기 뻔 하 셧
 습 니 다 . 그 때 부 터 저는 사 람 은 자 기
 만 노 령 하 면 행 복 한 인 생 을 만 들 수
 있 는 것 을 믿 게 됐 습 니 다 . 올 해 도 장
 학 금 을 받 고 학 비 을 댔 습 니 다 . 그 리 고
 지 난 여 름 방 학 때 우 리 학 과 에 서 추
 천 해 서 한 국 에 갔 다 왔 습 니 다 . 오 천 년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3

대학	몽골국립대 외국어문화대학교	학과	한국어학과	학년	3학년	이름	궁지쓰마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-

의 역사를 가진 그 아름다운 나라를
 제 눈으로 볼 때 아주 감탄했습니다.
 몇 년 전에 전쟁 등 여러 어려움 때문
 에 가난했던 나라가 모두들 노력하고
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처럼 선진국이 되
 는 것은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으면
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
 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
 걸 보여 주는 것입니다.
 그리고 저는 사람마다 믿음과 좋은
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 라는 말도 있습
 니다. 누구나 혼자서 살 수 없지요.
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도와
 주고 남들을 ^{풍부} 기쁘게 해 주면 우리 인
 생이 얼마나 ^Y해 지는지를 느낄 것입니
 다. 사람마다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
 루기 위해서 항상 한 계단 한 계단
 올라가면 이 모든 세상의 미래가 밝게
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에 말한
 그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꿈을 이루기
 위해서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
 니다. 선생님이란 지식의 뿌리를 심어
 주고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끌어
 주신 분이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4

대학	몽골국립대 외국어문화대학교	학과	한국어학과	학년	3학년	이름	궁지뜨마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-

는 중은 선생님 이 돼서 많은 학생 들 에
게 지식을 나누어 주고 조국 발전에 공헌
하기를 원합니다.

100

200

300

400

500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1

대학	울란바타르 사립대학교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강도야
----	-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

3 등

소망

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 꾸기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. 오늘은 선생님이 된다고 하다가 내일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. 이런식으로 수많은 직업을 가졌고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.

저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. 그때 당시 저와 친밀하게 사귀었던 친구들 중 한 친구가 치통으로 시달리곤 했습니다. 그 친구는 사탕을 매일 먹는 아이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되어서 친구의 썩은 이를 치료해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세계화하는 이런 시대에 외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모국어를 더 공부했습니다. 그때 당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TV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영화를 볼수록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. 저는 생각했습니다. 아니 꿈 꾸기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과 몽골 관계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저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2.

대학	울란바타르사립대학교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강토야
----	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

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. 한국어로
 인기있는 울란바타르대학교에 들어가서
 한국어를 잘 배우고 졸업하고 한국에
 유학가서 많이 공부하고 다시 몽골에
 와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껏 일하고
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
 줄 것 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.
 지금 4학년 학생으로서 나름대로 열
 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국어를
 배우는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
 걸음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
 다.
 저는 꼬마아이를 무척 좋아합니다. 어
 려를 때 집에서 동생들을 돌봐서 그런
 지, 아이들을 보면 기쁨이 생기고 그들
 을 통해 사랑을 얻습니다. 앞으로도
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
 고 싶습니다. 특히 부모로부터 왕따를
 당하는 아이들에게 고아원을 세워 주고
 싶습니다. 사실은 몽골에 이런 어린아이
 들이 많 습 니 다. 불쌍한 이런 아이들이
 자기를 보면서 '정말 운이 없다, 내 운
 명이 이렇다, 오�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
 나았을 텐데'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함
 니 다.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3

대학	울란바타르 사립대학교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강토야
----	-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

가난한 집에 태어나 돈이 없어 거리
에서 구두를 닦는 아이, 부모가 일하지
않고 일을 시켜 학교에 다니지 못한
아이 등 자기가 아무리 공부하고 남들
처럼 살고 싶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
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어린 아이들에게
제가 소망과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. 이
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
생각했습니다.

첫 번째 : 먼저 고아원을 세우고 그들이
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위기
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.

두 번째 :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를 시키
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
신경을 많이 써 줄 것입니다.

셋 번째 : 인격적인 사람으로 양육할 것
입니다. 이것은 성경책을 읽고 책에 나
오는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.
이것도 저의 소망 중 하나입니다.

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, 이런 말이
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
르치고 삶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주
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.

꿈이란 것을 아무것도 아닌 자를 어
떤 훌륭한 하고 남다른 뛰어난 사람으로

제 1회 몽골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4

대학	울란바타르 사립대학교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강토야
----	-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

변 화 시 켜 주 는 크 고 놀 라 운 침 입 니 다 .
 저 는 소 망 이 없 는 인 간 은 하 나 도 없
 다 고 생 각 합 니 다 . 그 러 나 소 망 이 이 루 어
 지 기 위 해 서 는 본 인 스 스 로 노 력 해 야
 합 니 다 . 이 세 상 에 저 절 로 생 기 고 이 루
 어 지 는 것 은 전 혀 없 습 니 다 . 노 력 해 야 만
 우 리 소 망 과 꿈 이 이 루 어 집 니 다 . ' 선 은
 스 스 로 돕 는 자 를 돕 는 다 ' 라 고 하 듯 이
 우 리 는 자 기 가 해 야 할 일 을 성 실 하 게
 최 선 을 다 해 서 해 야 한 다 고 생 각 합 니 다
 마 지 막 으 로 말 하 고 자 하 는 것 은 소 망
 이 없 다 면 소 망 을 가 저 라 , 소 망 을 가 졌
 으 면 노 력 하 고 전 진 해 라 . 그 령 게 하 면
 성 공 하 고 인 간 으 로 서 이 름 을 남 기 는 수
 있 다 는 것 입 니 다 . 호 랑 이 는 죽 어 서 가 죽
 을 남 기 고 사 람 은 이 름 을 남 기 다 는 말
 로 끝 내 겠 습 니 다 .